

도박이용자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

김 서 회¹⁾

신 성 만[†]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고 도박행동에 대한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을 통해 도박행동 심각도와 저수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최근 3개월간 1회 이상 도박에 참여한 성인 402명의 설문 응답 자료를 사용하여 다중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도박행동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 동기수준과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일반 동기 수준을 매개로 하여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경로를 통한 대인존재감은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저수준 도박행동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박이용자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동기와 대인존재감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도박행동, 저수준 도박행동, 기본심리욕구, 일반 동기, 대인존재감, 자기결정성 이론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이며, 2020 한국중독심리학회 학술연구 지원 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아 수행됨.

1) 한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

† 교신저자 : 신성만,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정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Tel: 054-260-1333, E-mail: sshin@handong.edu

현대 사회는 중독사회라고 불릴 만큼 니코틴, 알코올, 마약, 성 등 다양한 중독문제들로 인해 위기상태에 놓여있으며, 그 중 물질적인 풍요와 소비지향의 사회에서 점점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도박중독 문제이다(양정하, 2019).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도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전 연령층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상승시키고 있다.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5.3%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요 국가의 평균 유병률(3.7%)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도박문제가 비교적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020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도박중독 대상자 및 가족은 16,951명으로, 2019년 14,929명이었던 것에 비해 15.4% 증가했으며, 특히 주식 및 가상화폐와 관련된 상담 인원이 2019년 1,008명에서 2020년 1,732명으로 71.8% 증가했다(김준석, 2021, 이천용, 2021). 이러한 실태는 우리나라의 도박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도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락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지만, 소수의 사람은 도박에 과도하게 참여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Hodgins, Stea, & Grant, 2011). 도박으로 인한 피해는 우울, 불안, 두려움, 죄책감, 자살사고(이홍표, 2002; Sussman, 2017)와 같은 심리적 문제부터 폭력, 이혼 등의 관계적 문제, 그리고 자퇴, 실직,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김예진, 권선중, 김예나, 2020; Shaffer & Hall, 2002). 특히, 도박중독자는 도박의 결과에 대한 인지적 오지각을 보이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

을 벗어나 과도하게 도박에 참여함으로써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오세연, 2011; Sussman, 2017). 이러한 피해는 도박중독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가족, 친구와 동료 및 사회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Darbyshire, Oster, & Carrington, 2001; Ferland et al., 2008),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김영훈, 이영호, 2006; 장훈 등, 2010).

도박행동으로의 개입과 유지에는 사회문화적, 유전적,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미영, 2006, Blaszczynski & Nower, 2002; Griffiths & Delfabbro, 2001). 도박 행동은 다양한 생리심리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성공적인 도박문제의 치료를 위해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DiClemente, Story, & Murray, 2000; Griffiths & Delfabbro, 200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결정성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Deci & Ryan, 1994) 기본심리욕구에 주목하였다.

대표적인 동기 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1985)은 인간 동기에 대한 거시적 이론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의 여섯 가지 미니 이론 중 하나인 기본심리욕구 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 Theory; BPNT)은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좌절이 행동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의 성장과 통합, 웰빙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율감(Autonomy), 소속감(Relatedness), 유능감(Competence)으로 구성된다

(Ryan & Deci, 2017). 자율감은 스스로가 행동의 주체라고 느끼기 원하고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세 가지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된다(Deci & Ryan, 2002). 소속감은 관계의 연속 상에서 관심을 주고받으며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거나, 기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Baumeister & Leary, 1995; Deci & Ryan, 2014). 유능감은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사용할 때 충족된다(Deci & Ryan, 2000). 그러나, 사회적 조건이 개인의 이러한 욕구의 만족을 방해하여 심리적 고통이 증가할 때, 기본심리욕구는 만족되지 못하고 좌절된다(Chen et al., 2015). 욕구의 좌절은 스스로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인식하는 것(자율감 좌절), 동료나 친구,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단절된 경험을 인식하는 것(소속감 좌절),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유능감 좌절)을 포함한다(Mills, Li Anthony, & Nower, 2020).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중독 대상에 몰두하기 쉽다(정민선, 김현미, 권현용, 2012). 선행연구들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좌절은 인터넷, 게임, SNS, 스마트폰, 운동, 도박 등 다양한 중독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명순, 이보영, 2017; 김다현, 최진아, 2019; 정민선 등, 2012; Costa, Coppolino, & Oliva, 2016; Mills et al., 2018, 2020).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낮은 개인은 도박에 참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이나 승리에 대한 열망 등을 추구하고, 타인과의 연결성을

유지하여(이홍표, 2003)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높이고, 균형을 이루고자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심리욕구의 핵심인 자율감이 만족되지 않은 개인은 도박 경험을 자아 확대, 자아 강화, 자아 위협 등으로 지각하여 도박에 더 과도하게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Neighbors & Larimer, 2004).

기존의 선행연구는 기본심리욕구가 다양한 중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으나, 기본심리욕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중독 행동을 유발하는지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와 함께 연구된 다른 행동중독에 비해 도박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는 대부분 아동(김다현, 최진아, 2019; 김혜란, 이경숙, 2019) 및 청소년(김기모, 김현철, 2013; 정민선 등, 2012; 조희경, 최종옥, 2014)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Deci와 Ryan(2000)은 기본심리욕구인 자율감, 소속감, 유능감이 만족되면 성장을 위한 추구로 최대의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고 최고의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림 1과 같이 개인의 어떤 동기는 전적으로 의도적이고 개인의 관심사나 가치를 반영하는 내부적인 한편, 다른 동기는 누군가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강요받는 것처럼 완전히 외부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지각되는 자율감을 느낄 때 스스로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기 원하고, 소속감을 느낄 때 타인을 이용하여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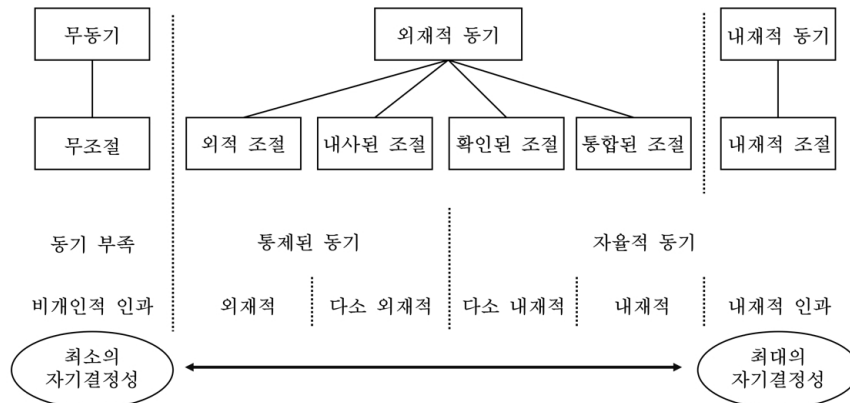


그림 1. 동기의 연속체(Continuum of Motivation; Ryan & Deci, 2000)

이 아닌, 안정적으로 교류하고 조화를 이루고 싶어 하며, 유능감을 느낄 때 자신의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전하여 내재적 동기가 유발된다(Deci & Ryan, 1991; Ryan & Deci, 2000). 동기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동기와, 학업동기나 도박동기와 같이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동기로 구분되는데(Vallerand, 1997)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박행동과 관련된 동기 연구들이 도박동기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게임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일반 동기의 수준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 직장인, 운동선수 등 다양한 대상에게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내재적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심리욕구와 동기 수준의 관련성이 검증되었다(Alesi, Gómez-López, Chicau Borrego, Monteiro, & Granero-Gallegos, 2019; Klacijnsen, Vermeulen, & Martens, 2018; van Aart, Hartman, Elferink-Gemser, Mombarg, & Visscher, 2017). Olafsen, Deci, Halvari(2018)의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작업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내재적 동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었다(김덕진, 양명환, 2013; 안미준, 2019).

동기의 수준은 다양한 영역에서 행동이 조절되는 방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Rodriguez, Neighbors, Rinker, & Tackett, 2015). 내재적 동기는 삶의 만족과 직업 성과 등 적응적인 결과를 유발하고(류영주, 양수진, 2017; Siddiqui, Thomas, & Soomro, 2020), 외재적 동기는 높은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 도박 등 부정적인 결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lank et al., 2017; Garcia, Adrianson, Amato, & Rapp-Ricciardi, 2020; Mills et al., 2020; Neighbors & Larimer, 2004). Rodriguez 등(2015)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동기의 수준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는데, 연구 결과 내재적 동기는 낮은 추격(chasing) 및 회피동기를 통해 도박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외재적 동기는 높은 추격 및 회피동기를 통해

도박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 이론과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지 않은 개인이 특정 행동이나 과업 자체에서 의미를 찾거나 내재적인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외재적 동기가 유발된 채로 행동에 참여하거나 외재적 동기를 부여하는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외재적 동기가 높은 개인은 외적 보상과 같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돈을 좇으며 추격매수를 하고 도박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일반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일반 동기 수준이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중독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감각을 발달시켜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쉽게 느낀다(Bayan, 2009). Rosenberg와 McCullough(1981)은 자기개념의 요소로 대인존재감(Mattering)을 제안하였는데, 대인존재감이란 타인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걱정하며, 나에게 의존한다는 느낌과 더불어,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 확장의 경험이자 동기이다. 대인존재감은 상담장면에서 내담자가 마음을 열도록 하고(Elliott, Kao, & Grant, 2004; Rayle, 2006),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대인관계와 삶의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유발하기(Amundson, 1993), 중독상담장면과 중독 행동의 문제를 경험하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일반 동기 수준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나, 기

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과 상황특정적 동기가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Demir와 Davidson(2013)의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대인존재감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소속감과 대인존재감의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Marshall, 2001)와 자율감이 대인존재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chmidt, Stoddard, Heinze, Caldwell, & Zimmerman, 2020; Taylor & Turner, 2001) 등이 보고됨에 따라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대인존재감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동기가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Chatters(2018)가 실시한 연구에서 내재적 학업동기는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외재적 학업 동기와 무동기는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 것을 보았을 때, 일반 동기 수준도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대인존재감은 중독상담장면에서 내담자가 마음을 열도록 돕고, 상담관계를 강화하며(Bayan, 2009; Elliott et al., 2004; Rayle, 2006), 중독 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Flores, 2004). 중독 행동을 사회 및 관계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연구에서는 대인존재감이 아닌 자아존중감을 중요한 내적 구인으로 간주하나, 대인존재감은 사회적, 관계적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이기에(Rosenberg & McCullough, 1981) 개인을 사회의 한 부분으로 맥락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 될 수 있다(송주석, 박기산, 김예인, 최희락, 신성만, 2018). Flores(2004)는 중독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 외적 변인으로 공감, 정서적 유대, 지지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중독자의 충동적인 물질사용 혹은 중독 행동이 감소한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는 송

주석 등(2018)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대인존재감,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탐색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존재감이 완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대인존재감은 중독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아직까지 대인존재감이 도박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중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기 수준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이 그 관계에서 이중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가설

가설 1.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도박행동 심각도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저수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연구자 소속기관인 H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2021-A0005)을

득한 후 진행하였다. 도박의 변화단계 알고리즘(Belding, Iguchi, & Lamb, 1996)에서는 지난 3개월간 도박을 한 적이 없는 도박자들을 단도박의 실행 및 유지단계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1회 이상 도박에 참여한 성인을 도박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도박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도박중독의 예방 및 회복을 돕는 목적의 카페와 블로그 등 18곳에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오프라인으로 응답을 희망하는 경우 설문지를 우편 발송 및 우편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532명이 참여하였고, 설문지 내 지시적 조작 점검 문항(instructional manipulation check item)을 설정하여 불성실 문항으로 간주된 자료(Oppenheimer, Meyvis, & Davidenko, 2009)를 제외한 40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

한국판 캐나다 문제 도박 척도(Korean version of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K-CPGI)

도박행동 심각도의 측정을 위해 DSM-IV의 병적 도박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Ferris와 Wynne(2001)이 개발한 캐나다 문제 도박 척도(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CPGI)를 김아영, 차정은, 권선중, 이순목(2011)이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캐나다 문제 도박 척도(K-CPGI)를 사용하였다. K-CPGI는 총 9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지난 1년 동안의 도박 관련 행동이나 폐해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에서는 점수에 따라 비문제성 도박(0점), 저위험성 도박(1-2점), 중위험성 도박(3-7점), 문제성 도박(8점 이상)으로 구분하며, 중위험성 이용자와 문제성 이용자를 합한 비율이 도박중독 유병률로 추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박행동 심각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절단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참여자의 전반적인 도박행동 문제 수준을 파악하고, 합산점수는 도박행동 심각도를 의미하는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김아영 등(2011)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4,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4으로 나타났다.

저수준 도박행동 척도(L척도)

저수준 도박행동을 보이는 개인이 고수준 도박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에 응답할 경우, 대부분 '매우 그렇지 않다'로 표기하여 '비문제성 도박' 상태로 분류되고, 바닥효과를 보이면서 저수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타당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김교현, 권선중, 김세진, 이순목, 2011). K-CPGI에서 보고되는 바닥효과(Floor effect; 이순목, 윤수철, 차정은, 김종남, 여성철, 2012)를 보완하고, 보다 높은 수준을 포함하는 도박행동의 심각도(K-CPGI)와 구분하여 저수준 도박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교현 등(2011)이 개발 및 타당화한 저수준 도박행동 척도(L척도)를 사용하였다. '도박에의 무관심', '사교도박', '저위험도박'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7문항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사교도박 요인에서 마지막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복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고(김교현 등, 2011). 본 연구에서도 내적 일치도를 저해하는 요인

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저수준 도박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교현 등(2011)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은 .83, 각 하위요인은 도박에의 무관심 .86, 사교도박 .72, 저위험도박 .78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Korean Vers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K-BPNS)

기본심리욕구의 측정을 위해 Ryan과 Deci(2000)가 개발한 기본심리욕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를 기반으로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및 타당화 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K-BPNS)를 사용하였다. '자율감', '유능감', '소속감'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8문항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은 .92, 각 하위요인은 자율감 .77, 유능감 .90, 소속감 .85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일반 동기 척도(Korean version of General Motivation Scale; K-GMS)

일반 동기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eci와 Ryan(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Sharp, Pelletier, Blanchard, Levesque(2003)이 개발하고 Pelletier 등(2005)이 수정한 일반 동기 척도(General Motivation Scale; GMS)를 권선중 등(2006)이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일반 동기 척도(K-GMS)를 사용하였다. '내적 조절', '통합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사된 조절', '외적

조절', '무동기'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자기결정성 연구에서는 내적 조절과 통합된 조절이 유사한 조절유형으로 확인되어 '자율적 동기 합성체'로 결합하여 연구하므로 (Deci & Ryan, 2000; Vansteenkiste, Simons, Lens, Soenens, & Matos, 2005), 본 연구에서도 내재적 동기와 통합된 조절을 하나의 요인으로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일반 동기 수준의 산출에는 Ryan과 Connell(1989)이 동기 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통합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 제안한 상대적 자율성 지수(Relative Autonomy Index; RAI)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율성이 높은 동기에는 양의 가중치를, 타율성이 높은 동기에는 음의 가중치를 줌으로써 RAI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적(내재적)인 일반 동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자율성 지수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Vallerand, Pelletier, & Koestner, 2008), $RAI = (2 \times \text{자율적 동기 합성체} + \text{확인된 조절}) - (\text{내사된 조절} + 2 \times \text{외적 조절})$. 권선중, 김교현, 이홍표, 이홍석(2006)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3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은 .95, 각 하위요인은 내적 조절 .83, 통합된 조절 .81, 확인된 조절 .83, 내사된 조절 .79, 외적 조절 .81, 무동기 .84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대인존재감 척도(Korean version of Mattering Scale)

대인존재감의 측정을 위해 Elliott 등(2004)이 개발한 대인존재감 척도(Mattering Scale)를 최한나와 임윤선(2013)이 변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대인존재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알아봄', '상호의존', '중요함'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18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최한나와

임윤선(2013)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은 .89, 각 하위요인은 알아봄 .82, 상호의존 .78, 중요함 .87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3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Process Macro의 다중매개분석 방법은 기존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과 달리, 하나 이상의 매개변인을 한 번에 검증하는 다중매개효과 모형의 검증이 가능하고, 연구모형의 측정오차를 반영한 검증이 가능하며, 개별 매개효과의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허원무, 2013)을 갖는다. 또한, 조합점수를 사용한 분석이 가능하여 일반 동기 수준의 산출을 위해 조합점수를 사용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도박 이용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도박행동의 문제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수의 분포 정도와 정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기본심리욕구가 도박행동 심각도와 저수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6번을 사용하여 기본심리욕구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 기본심리욕구와 저수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직접 및 간접효과의 유의도 확인을 위해서는 부

트스트래핑(Boo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Hayes(2013)의 권장대로 표본 수 10,000, 신뢰 구간 95%를 설정하여 간접효과가 신뢰구간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도박문제 수준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은 여자 216명(53.7%)가 남자 186명(46.3%)에 비해 많았다. 연령 범위는 만 19세~68세였고, 평균연령은 만 36.6세(SD=8.36)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6명(16.4%), 30대가 205명(51.0%), 40대가 106명(26.4%), 50대가 21명(5.2%), 60대가 4명(1.0%)으로 3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도박문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K-CPGI 점수를 기준으로 도박문제 수준

을 살펴본 결과, 문제성 도박 집단이 157명(39.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중위험성 도박 108명(26.9%), 저위험성 도박 59명(14.6%), 비문제성 도박 78명(19.4%)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유병률을 측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K-CPGI 점수 3점을 기준으로 도박행동의 문제 수준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중 265명(66.0%)이 도박중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기본심리욕구 만족, 일반 동기, 대인존재감, 도박행동의 심각도, 저수준 도박행동)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2, 첨도의 절대값이 7을 초과하지 않아 모든 주요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West, Finch, & Curran, 1995), 이는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와 함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변인	1	2	3	4	5
1 기본심리욕구 만족	-				
2 일반 동기	.430**	-			
3 대인존재감	.693**	.428**	-		
4 도박행동 심각도	-.329**	-.143**	-.373**	-	
5 저수준 도박행동	-.182**	-.113*	-.171**	.533**	-
M	2.90	0.43	2.41	6.89†	23.62†
SD	.70	1.94	.56	6.38	7.44
왜도	-.04	.18	-.39	.76	-.61
첨도	.57	1.96	.19	-.40	.49

주. * $p < .05$, ** $p < .01$, † 합산점수의 평균값

다중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도박행동 심각도와의 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저수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6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도박행동 심각도에서의 이중매개효과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도박행동 심각도와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23.4595$, $R^2=.150$, $p<.001$),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일반 동기($\beta=1.187$, $p<.001$), 대인존재감($\beta=.495$,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도박행동 심각도($\beta=-.148$, $p<.05$)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동기는 대인존재감($\beta=.046$,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도박행동 심각도($\beta=.016$,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존재감은 도박행동 심각도($\beta=-.381$, $p<.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이 유의한 매개변수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 도박행동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하고, 매개변수인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을 모형에 추가하였을 때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도박행동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해야 한다(Hayes, 2009). 본 연구에서도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도박행동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beta=-.332$, $p<.05$)보다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이 추가되었을 때 기본심리욕구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beta=-.148$, $p<.05$)이 줄어들어,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도박행동 심각도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도박행동 심각도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표 2. 기본심리욕구 만족, 일반 동기, 대인존재감, 도박행동 심각도 간의 경로계수

경로	β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기본심리욕구 만족 → 일반 동기 수준	1.187	.125	9.516***	.942	1.432
기본심리욕구 만족 → 대인존재감	.495	.031	15.954***	.434	.556
일반 동기 → 대인존재감	.046	.011	4.080***	.024	.068
기본심리욕구 만족 → 도박행동 심각도	-.148	.066	-2.236*	-.278	-.018
일반 동기 → 도박행동 심각도	.016	.019	.849	-.021	.054
대인존재감 → 도박행동 심각도	-.381	.083	-4.441***	-.535	-.207

주. * $p<.05$, *** $p<.001$

표 3. 기본심리욕구 만족, 일반 동기, 대인존재감이 도박행동 심각도에 미치는 효과 분해

총효과 및 직접효과				β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기본심리욕구 만족	→	도박행동 심각도	-.332	.048	-.426	-.239
직접효과	기본심리욕구 만족	→	도박행동 심각도	-.148	.066	-.278	-.018
간접효과				β	SE	LLCI	ULCI
총 간접효과				-.184	.055	-.295	-.079
	기본심리욕구 만족	→ 일반 동기	→ 도박행동 심각도	.019	.025	-.026	.073
	기본심리욕구 만족	→ 대인존재감	→ 도박행동 심각도	-.183	.050	-.285	-.089
기본심리욕구 만족	→ 일반 동기	→ 대인존재감	→ 도박행동 심각도	-.020	.008	-.040	-.007

하한값 사이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총 간접효과($\beta = -.184$, $CI = -.295 \sim -.07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단순 매개효과의 경로 중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일반 동기를 매개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 = .019$, $CI = -.026 \sim .07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대인존재감을 매개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eta = -.183$, $CI = -.285 \sim -.08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beta = -.020$, $CI = -.040 \sim -.00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저수준 도박행동에의 다중매개효과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저수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5.2014$, $R^2 = .04$, $p < .01$), 구체적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일반 동기($\beta = 1.187$, $p < .001$), 대인존재감($\beta = .495$,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저수준 도박행동($\beta = -.072$, $p > .05$)에는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동기는 대인존재감($\beta = .046$,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저수준 도박행동($\beta = -.007$, $p > .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존재감은 저수준 도박행동($\beta = -.062$, $p > .05$)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이 유의한 매개변수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 저수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하고, 매개변수인 일반 동기와 대인존재감을 모형에 추가하였을 때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저수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분석결과 본 모형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저수준 도박행동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beta = -.114$, $p < .01$)을 보인 것에 반해,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이 추가되었을 때 기

표 4. 기본심리욕구, 일반 동기, 대인존재감, 저수준 도박행동 간의 경로계수

경로	β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기본심리욕구 만족 → 일반 동기	1.187	.125	9.516***	.942	1.432
기본심리욕구 만족 → 대인존재감	.495	.031	15.954***	.434	.556
일반 동기 → 대인존재감	.046	.011	4.080***	.024	.068
기본심리욕구 만족 → 저수준 도박행동	-.072	.044	-1.643	-.157	.014
일반 동기 → 저수준 도박행동	-.007	.013	-.537	-.031	.018
대인존재감 → 저수준 도박행동	-.062	.055	-1.134	-.170	.046

주. *** $p < .001$

표 5. 기본심리욕구 만족, 일반 동기, 대인존재감이 저수준 도박행동에 미치는 효과 분해

총효과 및 직접효과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기본심리욕구 만족	→	저수준 도박행동	-.114	-.053
직접효과	기본심리욕구 만족	→	저수준 도박행동	-.072	.014

본심리욕구 만족이 저수준 도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beta = -.072$, $p > .05$) 기본심리욕구와 저수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트스트래핑으로 각 경로의 간접효과 분석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으며, 총효과 및 직접효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도박참여자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일반 동기 수준, 대인존재감, 도박행동 심각도, 저수준 도박행동의 수준을 살펴보고 각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한 후에, 기본

심리욕구의 만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자기결정성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연구문제 및 모형을 설정하고, 최근 3개월간 1회 이상 도박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한 40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일반 동기 수준, 대인존재감이 도박행동의 심각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Deci &

Ryan, 2002),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정도가 다양한 중독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다현, 최진아, 2019; 정민선 등, 2012; Allen & Andeson, 2018; Costa et al., 2016)와 맥을 같이하며, 도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Dennis, Davis, Chang, & McAllister,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개인은 스스로가 행동의 주체라고 느끼지 못하고(자율감), 사회적으로 연결되어있다고 느끼지 못하며(소속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가 부족 할수록(유능감) 심각한 도박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일반 동기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일반 동기 수준을 단일 매개 변인으로 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은 자율감과 소속감, 유능감이 만족되지 못할수록 행동 자체의 즐거움이나 내적 만족감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강요 받거나 별개의 보상에 목적을 가지고 특정 활동에 참여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 이는 Deci와 Ryan(2000)이 자기결정성 이론을 통해 동기의 유형을 자율(내재적)-통제(외재적) 연속선 상에서 차별화하고,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통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한 것(Deci & Ryan, 1985, 2000; Ryan & Deci, 2017)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일반 동기 수준을 단일 매개 변인으로 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내재적 동기가 도박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Kushnir, Godinho, Hodgins, Hendershot, & Cunningham, 2015; Mills et al., 2020; Rodriguez et al., 2015)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박참여자

상생활에서 보이는 동기 수준이 단독으로 도박행동에 미치는 것이 아닌, 다른 현상을 매개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개인의 자율감과 소속감, 유능감이 충족되지 않아서 일 상에서 별개의 보상이나 강요에 의해 행동하더라도, 심각한 도박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존재감을 단일 매개 변인으로 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이 대인존재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Marshall, 2001; Schmidt et al., 2020; Taylor & Turner, 2001)과 맥을 같이하며, 두 변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즉, 개인은 자율감과 소속감, 유능감이 만족되지 않을수록 자신과 타인을 둘러싼 세계에서 스스로를 중요하고 의미있는 존재라고 믿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대인존재감을 단일 매개변인으로 하여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존재감이 부정적 정서나 다른 중독 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송주석 등, 2018; Flett & Zangeneh, 2020; Flores, 2004)과 맥을 같이하며,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대인존재감을 통해 중독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발견을 제시하였다. 즉, 개인은 자율감과 소속감, 유능감이 만족되지 않을수록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스스로를 중요하고 의미있는 존재라고 믿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도박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일반 동기 수준을 통해 대인존재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 도박행동 심각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동기의 수준과 기본심리욕구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동기의 자율성이 낮을수록, 기본심리욕구의 좌절 정도가 클수록 도박문제의 위험성이 크다고 밝힌 Mills 등(202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동기의 수준이 각각 대인존재감에 영향을 미치고(Chatters, 2018; Schmidt et al., 2020; Taylor & Turner, 2001),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대인존재감이 중독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송주석 등, 2018; Flores, 2004)를 통해 추정하여 가정했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결과이다. 즉, 개인이 자율감과 소속감, 유능감이 만족되지 않았다고 느낄수록, 행동 자체의 즐거움이나 내적 만족감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강요받거나 별개의 보상에 목적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를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져, 심각한 도박문제라는 부정응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일반 동기 수준, 대인존재감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저수준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저수준 도박행동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총효과)을 보인 것에 반해,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이 추가된 연구모형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저수준 도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직접효과)으로 나타나 기본심리욕구와 저수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도박행동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예슬, 임숙희, 김교헌, 2015; Dennis et al., 2017; Mills et al., 2020)과 일치하는 맥락을 보였으나, 선행연구를 통해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Deci & Ryan, 1985, 2000),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동기의 자율성이 대인존재감에 영향을 미쳐(Marshall, 2001; Schmidt et al., 2020; Taylor & Turner, 2001) 대인존재감을 통해 도박행동 심각도에 영향을 미칠 것(Amundson, 1993; Flores, 2004)이라고 가정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즉, 개인이 자율감과 소속감, 유능감이 만족되지 않았다고 느낄수록 사교와 유희를 즐기기를 목적으로 도박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그 영향이 일반 동기 수준과 대인존재감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도박행동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적 진행도가 높은 수준의 도박행동 심각도를 측정하는 K-CPGI 척도와 함께 저수준 도박행동을 측정하는 L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요 변인이 도박행동 심각도 및 저수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적절하고 과도한 도박행동은 도박문제를 야기하지만 모든 도박행동이 도박문제로 취급되거나 그 자체로 중독으로 여겨지지 않아야 하고, 유희와 오락 수준의 도박행동을 도박중독 수준의 행동과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도박행동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더불어, 기존의 도박행동과 관련된 동기 연

구들이 도박동기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도박경험자 삶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 동기에 주목하여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일상 생활에서의 자율적(내재적) 동기와 대인존재감을 통해 도박행동의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박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기본심리욕구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돕고, 도박행동 자체를 문제로 취급하고 이를 멈추기 위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확인하며, 일상에서의 관심과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도박자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에 관한 자기개념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변인임에도 연구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던 대인존재감을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안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대인존재감은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지는데(최한나, 임윤선, 2013), 개인 내적인 자아개념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자아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보편적인 느낌(Rosenberg, 1965)이고, 대인존재감은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느낌(Elliott et al., 2004)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OVID-19로 인하여 개인이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대인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Flett & Zangeneh, 2020), 대인존재감의 개념은 더욱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중독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쉽게 느끼기 때문에, 중독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 장면과 개인의 일상에서 스스로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Bayan,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가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를 통해(Rayle, 2006) 대인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의 효과성을 지지하는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편의표집 방법을 통해 최근 3개월간 1회 이상 도박행동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온라인 설문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중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도박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오프라인(강원랜드, 로또방 등)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대상들의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도박에 참여하는 대상의 비율을 확대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도박 참여 방법에 따른 도박 이용 관련 특성과 주요 변인의 영향력 등에서 차이를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으나, 최근 중독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에서 나아가 기본심리욕구의 균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Sheldon & Niemiec, 2006) 생리·심리적 균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균형을 함께 고려하여 도박행동에 미치는 다

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다차원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는 성인의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청소년과 다른 중독 행동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청소년들의 도박행동은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이승현, 서민수, 조운오, 2019), 도박을 비롯하여 음주나 흡연, 마약 등 다른 중독 행동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강환웅, 2020), 다양한 대상 및 중독 행동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결과와 적용 범위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환웅 (2020. 9. 7).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중독환자 재발 ‘증가’. 한의신문.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167.
- 권명순, 이보영 (2017). 대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및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1(3), 540-553.
- 권선중, 김교현, 이홍표, 이홍석 (2006). 자발적 동의(Informed Consent), 윤리적 문제일 뿐인가?: 연구 참여자의 자율적 동기가 사후 대처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1-22.
- 김교현, 권선중, 김세진, 이순목 (2011). 저수준 도박행동 연구를 위한 개념화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99-625.
- 김기모, 김현철 (2013).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SNS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 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2), 477-495.
- 김다현, 최진아 (201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만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23(2), 19-34.
- 김덕진, 양명환 (2013). 스포츠 상황에서 기본적 심리욕구만족척도 개발과 자기결정 이론의 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4(1), 29-58.
- 김아영, 차정은, 권선중, 이순목 (2011). CPGI의 한국판 제작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011-1038.
- 김영훈, 이영호 (2006).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697-710.
- 김예진, 권선중, 김예나 (2020). 도박중독자 가족 스트레스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5(1), 15-30.
- 김준석 (2021. 4. 26). 도박인지 투자인지...게임들 ‘가상화폐 중독’ 경고음. 경인일보.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425010004891>.
- 김혜란, 이경숙 (2019).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스마트폰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6, 65-75.
- 류영주, 양수진 (2017). 내재적·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Grit)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4), 93-115.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2009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

- 원회.
- 송주석, 박기산, 김예인, 최희락, 신성만 (2018).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3), 537-557.
- 안미준 (2019). 공공기관 종사자의 기본심리욕구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정하 (2019). 도박중독 상담자 역량모형 개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연미영 (2006). 청소년의 충동성, 가족도박수준 및 거주지역이 청소년의 도박행동, 도박신념 및 미래의 도박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14.
- 오세연 (2011). 사례분석을 통한 도박중독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 23-45.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순목, 윤수철, 차정은, 김종남, 여성철 (2012). 한국판 CPGI 와 원본척도(CPGI) 간 측정동등성 및 점수연계 가능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401-425.
- 이승현, 서민수, 조운오 (2019).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95.
- 이예슬, 임숙희, 김교현 (2015). 생활 스트레스 사건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불만족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05-405.
- 이천용 (2021. 2. 15). 도박문제관리센터 · 사감 위, 자체시스템 활용한 비대면 상담 개시. TV서울.
<http://www.tvseoul.kr/mobile/article.html?no=35421#078x>
- 이홍표 (2002). 도박의 심리. 서울: 학지사.
- 이홍표 (2003). 도박동기와 병적 도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69-189.
- 장 훈, 윤상연, 허태균 (2010). 도박유형에 따른 도박행동과 도박문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3), 331-354.
- 정민선, 김현미, 권현용 (2012). 청소년의 기본 욕구충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0(1), 159-174.
- 조희경, 최종옥 (2014). 기본심리욕구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53-253.
- 최한나, 임운선 (2013). 한국판 대인존재감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3), 1699-1715.
- 허원무 (2013). 매개효과 분석 방법의 최근 트렌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단순, 다중, 이중매개효과 분석 방법. *기업과혁신연구*, 6(3), 43-59.
- Alesi, M., Gómez-López, M., Chicau Borrego, C., Monteiro, D., & Granero-Gallegos, A. (2019). Effects of a motivational climate on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motivation and commitment in teen handball play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15), 2702.
- Allen, J. J., & Anderson, C. A. (2018). Satisfaction and frustra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 in the real world and in video games predict internet gaming disorder scores and well-be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4, 220-229.
- Amundson, N. E. (1993). Mattering: A foundation for employment counseling and training.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0(4), 146-152.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ayan, J. K. (2009, March 13). *Addiction Counselor: the impact of counselor's attitude towards clients with numerous treatment attempts-recovery/relapse[paper presen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Belding, M. A., Iguchi, M. Y., & Lamb, R. J. (1996). Stages of change in methadone maintenance: Assessing the convergent validity of two measur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0(3), 157-166.
- Blank, M. D., Ferris, K. A., Metzger, A., Gentzler, A., Duncan, C., Jarrett, T., & Dino, G. (2017). Physical activity and quit motivation moderators of adolescent smoking reduction.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41(4), 419-427.
- Blaszczynski, A., & Nower, L. (2002). A pathways model of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Addiction*, 97(5), 487-499.
- Chatters, L. J. (2018). *Explor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Racial/Ethnic Socialization, Academic Motivation and African American Identity on the Relation between Microaggressions and Mattering of African American Students at Predominantly White Institutions*. ProQuest LLC.
- Chen, B., Vansteenkiste, M., Beyers, W., Boone, L., Deci, E. L., Van der Kaap-Deeder, J., Duriez, B., Lens, W., Matos, L., Mouratidis, A., Ryan, R. M., Sheldon, K. M., Soenens, B., Petegem, S. V., Verstuyf, J., (2015).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need frustration, and need strength across four cultures. *Motivation and Emotion*, 39(2), 216-236.
- Costa, S., Coppolino, P., & Oliva, P. (2016). Exercise dependenc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The mediating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4(3), 241-256.
- Darbyshire, P., Oster, C., & Carrig, H. (2001). Children of parent(s) who have a gambling problem: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commentary on research approaches.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9(4), 185-193.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 Y.: Plenum.
- Deci, E. L., & Ryan, R. M. (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R. A. Dienstbier (Ed.), *Current theory and research in motivation*, Vol. 38.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90: Perspectives on motivation (p. 237-288).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Deci, E. L., & Ryan, R. M. (1994). Promoting self determined educ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8(1), 3-14.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319-338.
- Deci, E. L., & Ryan, R. M.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3-33.
- Deci, E. L., & Ryan, R. M. (2014). Autonomy and need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Relationships motivation theory. *Human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53-73.
- Demir, M., & Davidson, I. (2013).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ship and happiness: Perceived responses to capitalization attempts, feelings of mattering, and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same-sex best friendships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2), 525-550.
- Dennis, C., Davis, T., Chang, J., & McAllister, C. (2017). Psychological vulnerability and gambl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60(6-7), 471-486.
- DiClemente, C. C., Story, M., & Murray, K. (2000). On a roll: The process of initiation and cessation of problem gambling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6(2), 289-313.
- Elliott, G. C., Kao, S., & Grant, A. M. (2004). Mattering: empirical validation of a social-psychological concept. *Self and Identity*, 3, 339-354.
- Ferland, F., Fournier, P. M., Ladouceur, R., Brochu, P., Boucjard, M., & Paquet, L. (2008). Consequences of pathological gambling on the gambler and his spouse. *Journal of Gambling Issues*, 22, 219-229.
- Ferris, J. A., & Wynne, H. J. (2001). *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pp. 1-59). Ottawa, ON: Canadian Centre on Substance Abuse.
- Flett, G. L., & Zangeneh, M. (2020). Mattering as a vital support for peopl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benefits of feeling and knowing that someone cares during times of crisis. *Journal of Concurrent Disorders*, 2(1), 106-123.
- Flores, P. J. (2004).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Implications for group psychotherapy*. In B. Reading & M. Weegmann (Eds.), *Group psychotherapy and addiction* (p. 1-18). Whurr Publishers.
- Garcia, D., Adrianson, L., Amato, C., & Rapp-Ricciardi, M. (2020). Affectively Motivated: Affective Profiles, Motivation, Stress and Energy. *Biquarterly Irani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2), 21-32.
- Griffiths, M. D., & Delfabbro, P. (2001). The biopsychosocial approach to gambling: Contextual factors in research and clinical interventions. *Journal of Gambling Issues*, (5), 1-34.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dford.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 Hodgins, D. C., Stea, J. N., & Grant, J. E. (2011). Gambling disorders. *The Lancet*, 378, 1874-1884.
- Klaaijsen, A., Vermeulen, M., & Martens, R. (2018). Teachers' innovative behaviour: The importance of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trinsic motivation, and occupational self-efficacy.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2(5), 769-782.
- Kushnir, V., Godinho, A., Hodgins, D. C., Hendershot, C. S., & Cunningham, J. A. (2015). Motivation to quit or reduce gambling: Associations between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Transtheoretical Model of Change. *Journal of Addictive Diseases*, 35(1), 58-65.
- Marshall, S. K. (2001). Do I matter? Construct validation of adolescents' perceived mattering to parents and friends. *Journal of Adolescence*, 24, 473-490.
- Mills, D. J., Li Anthony, W., & Nower, L. (2020). General motivation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roblem gambling: applying the framework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ddiction Research & Theory*, 1-8.
- Mills, D. J., Milyavskaya, M., Mettler, J., & Heath, N. L. (2018). Exploring the pull and push underlying problem video game use: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5, 176-181.
- Neighbors, C., & Larimer, M. E. (2004). Self-determination and problem gambl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4), 565-583.
- Olafsen, A. H., Deci, E. L., & Halvari, H. (2018).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ork motivation: A longitudinal test of directionality. *Motivation and Emotion*, 42(2), 178-189.
- Oppenheimer, D. M., Meyvis, T., & Davidenko, N. (2009). Instructional manipulation checks: Detecting satisficing to increase statistical pow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867-872.
- Pelletier, L. G., Sharp, E., Blanchard, C., Levesque, C., Vallerand, R. J., & Guay, F. (2005). *The Global Motivation Scale (GMS): Its validity and usefulness in predicting success and failure at self-regulatio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University of Ottawa.
- Rayle, A. D. (2006). Mattering to others: Implications for the counseling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4), 483-487.
- Rodriguez, L. M., Neighbors, C., Rinker, D. V., & Tackett, J. L. (2015). Motivational profiles of gambling behavior: Self-determination theory, gambling motives, and gambling behavior. *Journal of gambling studies*, 31(4), 1597-1615.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62.
- Rosenberg, M., & McCullough, B. C. (1981). Mattering: Inferred significance and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Research in Community & Mental Health*, 2, 163-182.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yan, R. M., & Deci, E. L. (2017). *Self-determination theory: Autonomy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human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ness*. New York: Guilford.
- Schmidt, C. J., Stoddard, S. A., Heinze, J. E., Caldwell, C. H., & Zimmerman, M. A. (2020). Examining contextual and relational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s of societal and interpersonal mattering among rural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8(6), 2013-2032.
- Shaffer, H. J., & Hall, M. N. (2002). The natural history of gambling and drinking problems among casino employe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405-424.
- Sharp, E., Pelletier, L. G., Blanchard, C., & Levesque, C. (2003). *The Global Motivation Scale: Its validity and usefulness in predicting success and failure at self-regulation*.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Los Angeles, CA.
- Sheldon, K., & Niemiec, C. (2006). It's not just the amount that counts: Balanced need satisfaction also affect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2), 331-341.
- Siddiqui, S., Thomas, M., & Soomro, N. N. (2020). Technology integration in education: source of intrinsic motivation,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Journal of e-Learning and Knowledge Society*, 16(1), 11-22.
- Sussman, S. Y. (2017). *SUBSTANCE AND BEHAVIORAL ADDI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J., & Turner, R. J. (200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mattering to others for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0-325.
- Vallerand, R. J. (1997). Towar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9, 271-360.
- Vallerand, R. J., Pelletier, L. G., & Koestner, R. (2008). Reflections on self-determination theory.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49(3), 257-262.
- van Aart, I., Hartman, E., Elferink-Gemser, M., Mombarg, R., & Visscher, C. (2017). Relations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PE-motivation and fundamental movement skills in 9-12-year-old boys and girls in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22(1), 15-34.
-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oenens, B., & Matos, L. (2005). Examining the motivational impact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goal framing and autonomy supportive versus internally controlling communication style on early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76(2), 483-501.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Sage Publications, Inc.

논문 투고일 : 2021. 10. 12

1 차 심사일 : 2021. 11. 02

게재 확정일 : 2021. 11. 23

The Effect of the Gambler's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n Gambling Behavior: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General Motivation and Mattering

Seo-hee Kim

Sung-ma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Handong Global University

In order to examine the variables affecting gambling behavior and find intervention strategi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n the severity of gambling behavior and low-level gambling behavior through the general motivation level and mattering respectively. Self-reported data of 402 adults who have participated in gambling at least once in the last 3 months were analyzed, and dual-mediator model was conducted.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gambling behavior severity through general motivation and mattering. Specifically,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ttering through general motivation, and mattering through this path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gambling behavior severity. On the other h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low-level gambling behavior, but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general motivation and mattering was not significant in this relationship. Based on these result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n the effects of the general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presence on gambling behavior were proposed,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Gambling Behavior, Low-level Gambling Behavior, Basic Psychological Needs, General Motivation, Mattering, Self-determination theory*